

II. 타락하기 전의 아담의 생활

1. 영혼의 안식

타락하기 전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 안에서 왕으로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갈등, 영육간의 갈등이 없이,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2. 범사의 안식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같이 간략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창세기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이 땅위에서의 첫날은 하나님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하는 삶은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 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1.3 건강의 안식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없이 창조된 아담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런 불사성은 율법의 순종에 의해 약속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아담의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불사성’ ‘죽지 않는 육신’의 Immortality 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할 것은 Immortality 는 영생 Eternal Life 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 아담에게 약속은 되었지만 취한바 되지는 않았습니다(디도서 1 : 2 ...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담의 육체는 노쇠와 병듦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Immortality 는 Mortality 로 됩니다.

따라서 죽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창조의 목적이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III. 아담의 타락

아담의 타락은 영혼과 범사의 안식, 건강의 안식을 상실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1. 영혼의 안식의 파괴

창세기 3 :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의 범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교제가 파괴되고,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범죄후 무엇을 먹을가 입을 가에 대한 불안이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려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죄의 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 나기 위해, 양심이 증거하는 죄의 수치를 덮고, 자신을 정당화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던 마음의 안식은 깨어지고, 처벌의 불안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후 인간의 모든 종교적 철학적 노력은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의 안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마련해야 하나까--.
인간 노력의 소산인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 변통일 뿐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는 가장 가까워야할 아내인 이브와의 사랑에도 균열이 다가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은 깨어져 책임전가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 : 12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간의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불화에 원인이 있으며,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마음의 안식이나 이웃간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어데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지를 알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 방황하며 유리하며 정처 없이 헤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천년 만년 있을 곳인 줄 알고 이 땅위에서 안식하려고 합니다.

2. 범사의 안식의 파괴

창세기 3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 :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의 저주를 말합니다. 범사에 있어서의 저주는 범사의 안식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여야 합니다. 범사의 안식이 깨진 인간이 감당하여야 할 수고를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얻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스스로 너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라는 것이 범사의 저주입니다.

땅이 수고한대로 소산을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범사의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땅이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자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이 스스로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없는 고아가 자신의 식량을 스스로 예비하기 위해 동냥 깡통을 옆에 차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창세기 3 장에서는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 3:23-24).”

3. 건강의 안식 파괴- Immortality 의 상실

육신의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창세기 3:19 은 “--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하심으로 흙에서 돌아가는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 왔습니다. Immortal Life 는 Mortality 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 가기 위해 육신은 노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질병을 갖다 줍니다. 온 세상에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4. 사탄의 권세

창세기 3 :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창세기 3:14)”하심으로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은 흙에서 온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인간에게 행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14 에서 마귀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라고 합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우리 안에 행사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지옥에 올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로마서 7: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결과 우리는 죄의 가시체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죄의 하수인인 옛사람의 인격을 형성해놓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떼어 버릴려 해도 떼어 버릴 수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를, 근심과 불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자이건 죄인이건 누구든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규를 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 15 에서 절규하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또 로마서 7:18 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함으로 선을 행하고 싶으나,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게 됩니다. 뱀더러 “종신토록 흠을 먹어라” 한 말이 실현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앞으로 공부할 청의와 성화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